

靑 한발 물러 자르고 가나

박 수석 등 '사퇴 없다' 입장서 선회 조짐 야권 공세에 부담...이르면 오늘 거취 결정

재산의혹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사퇴 압박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등 일부 수석비서관에 대해 '사퇴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론의 동향을 충분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여론은 언론일 수도 있고, 당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수석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퇴를 해야 할 정도의 중대 결함이 아니라는 데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박 수석 등의 사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대로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이번 재산 파문을 계속 방치할 경우 비판 여론의 확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물론 '4·9 총선' 이후 국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의 추진력에 저지 않은 손상이 불

가피하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는 이르면 28일 일부 수석이 사퇴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은 차치하더라도 우군인 한나라당까지 등을 돌릴 경우 더 이상 사퇴 불가론을 고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에서 사퇴를 강요할 경우 마냥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박 수석 등의 사퇴 요구를 여러 루트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28일에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퇴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어서 청와대는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내

몰리고 있다.

박 수석은 수석 임명 과정에서 논문표절 의혹을 야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02년 매입한 인천국제공항 옆 영종도 논(면적 1천353㎡)과 관련된 투기 의혹에다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도 경작을 한 것처럼 '자경(自耕)확인서'를 조작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의혹을,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박 수석측은 이에 대해 "너무 심하다.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론 핵심부가 박 수석의 조기 사퇴론에 선포 응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혹에 휩싸인 다른 수석들도 각각 해명을 나서고 있으나, 이번 재산 파문의 결말이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부 수석이 사퇴할 경우 추가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과, 추가 사퇴를 놓고 여야간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정회의의 '엇박자' 계속

주요 법안 시각차 여전...감세·규제 완화 난항

한나라당의 대선·총선 핵심 공약인 감세와 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당정간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58건에 이르는 주요 추진법안의 조율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인 감세 및 규제완화 관련법을 비롯, 대부분 법안들에서 적지않은 시각 차를 노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당정협회는 지난 23일 1차 당정협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것으로, 서민생활, 기업활동과 관련된 감세 조치 및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 세수 부족 및 행정적 부작용 발생 등을 우려한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면서 진통만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당은 장애인 LPG 특소에 면제법 등 10여개의 감세 관련 법안들과 '낙산인사'를 차단하는 공공기관운영 관련법 개정안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수용근로', '신중검토', '일부수용' 등 다양한 입장을 통해 대부분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적으로 주장했는데 (정부는) 감세는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규제 완화 대신 정부의 행정편의에 연연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약인 감세와 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당정간 이견을 보여 새 정부 초반부터 대립과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1차 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왼쪽)과 조종표 국무총리실장이 논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회의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뭐가 다르지 빨리 보여주려고 싶다"면서 "국민 편의주의에서 모든 법안을 바달라. 정부 주도도 행정편의주의에 의거해 계속 본다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또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 그 재원을 재정 지출에 쓰겠다면서 감세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과 합의한 17개 법안을 비롯한 중점 추진 법안들은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향후 당정간 정책갈등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정협회는) 다른 입법과 배치되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 지 확인만 하는 것"이라며 "특히 중점 추진법안 중 17개는 야당과 합의한 만큼 정부가 반대해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4월 임시국회서 추경예산 편성 안해"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위원 재정책략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임

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 보다 시간도 없고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신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2조원 정도 있는 만큼 일단 그것을 중심으로 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내수 진작을 위해 4조8천655억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물

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후 부활에서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뒤 "재정 여건상 운신의 폭이 적지만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색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봉화 복지부 차관 농지 매입 위장전입 의혹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농지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차관은 지난 1986년 12월 준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로 밭 두 필지(6천896㎡)와 논 1필지(487㎡)를 사들였다.

매입 시기는 이 차관이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였다. 당시 이 차관은 토지를 구입하면서 서울에 있던 주민등록상 주소

지를 경기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로 옮겼다.

이 차관이 땅 매입을 위해 주소 이전한 것은 당시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996년까지 농지법은 농지를 사려는 사람에게 '통작거리 제한'과 '사전 거주기간 제한'이라는 규제장치를 두어 농지로부터 4km 범위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차관은 사전 거주기간 제한을 채운 뒤 1989년 4월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을림곡선수가자촌 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 차관은 경기 안성에 살거나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복지부를 통해 "무역사업을 하는 남편이 상의없이 농지를 매입해 잘 몰랐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한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땅을 적법하게 처분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강의!

곽내영교육학

현재 상담 접수중! 마감주의 개강 5월 2일

▶ 강의시간: 직강반(금)10:30~18:00 (토)09:00~18:00, 영상반 / 월, 화, 수18:10~22:00 ▶ 수강료: 기본이론반 120만원 (28만원)

* 곽내영고시학원은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많은 문제를 적용 시켰다'는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 오직 임용고시만을 전문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서 합격까지 - 무료상담 '매주 (화,금)11시, 3시, 7시'

개설 강좌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전공국어	전공생물	전공물리
	곽내영 선생 개강 5월 2일	위재권 선생 개강 7월 첫째주	임미선 선생 개강 5월 11일	최경태·마은용 선생 개강 7월 초	김치옥 선생 개강 7월 초	장영민 선생 개강 7월 초

곽내영고시학원 대표전화 529-0090 http://www.naeyoung.com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신안 사거리) 02816-1646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남·48), 최영아(여·3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재능방송·한국경제TV·부동산TV출연 강사진!

개강 5월1일 주야 합격 (첫진도 시작반)

합격 을 원하신다면 한 수강료, 집가짜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출신을 선택하십시오.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개원)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 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출신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일빌딩 북구점 ☎ 529-8111 ▶ 개원동 구시성사거리(중흥동)대현빌딩 6층

= 가장 안정된 직업, 늦었지만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상한연령제지=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원직, 세무직, 관공직, 감사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특직, 특목, 건축, 보건

※ 특별한 개원, 가맹 주부님들을 대상으로한 09:30분 강의시작반 모집 ※

5월 9급 지방직대비 개강 합격수강 회원모집

= 환율반 개강 : 4월 21일 = 5월 1일 (주·연·요) (반액·연·연수) =

합격수강 회원모집

- 6개월 (총)회차 80만원
- 1년 (총)회차 120만원
- 합격시까지 170만원

=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sl.co.kr ☎ 222-4560

주택관리사

★ 2010년 ★ 의무채용 ★ 실시확정 ★

4월 무료 강의 실시

주택관리사(보)11회

9월 7일 시험시행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현대고시학원

(광주동부점세영) ☎ 062)222-6790, 232-1088

= 합격률 전국 1위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재상담접수중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

- ♣ 현대적 학습시설
- ♣ 첨단 학습보조 시스템
- ♣ 과학적 평가시스템
-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생활안내 광고

광고접수 및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